

“선생님의 열정, 섬 아이들 사로잡다”

■완도 보길동 여자분교장 송창신 교사



지난해 3월에 부임, 1년 4개월여 만에 학생들에게 풍물놀이를 지도해 전국대회에서 최고상과 특별상을 수상한 교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완도 보길동 여자분교장 송창신(여·51) 교사.

방과 후 걸도는 아이들 ‘끼’ 발견

이곳은 해남 땅끝에서 1시간여 배를 타거나 완도 화흥포에서 1시간 30분 배를 타고 보길동 예송리 해수욕장에서 다시 작은 통배를 이용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작은 섬이다.

13기구에 주민수는 30명, 여자분교장 학생은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2명, 4학년 1명, 5학년 1명 등 총 6명이 전부다.

학원은 물론 놀이터나 구멍가게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송교사는 평소 취미활동으로 해왔던 풍물놀이를 지도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같이 부임

한 송삼선, 최진희 교사와 의기투합, 아이들에게 풍물놀이를 지도하게 됐다.

송교사는 특히 매주 수요일 본교학생들과 합동수업을 받을 때 여자분교장 학생들이 자신감 없이 걸도는 것을 보고 이러한 결심을 굳히게 됐다.

방과 후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장단을 맞추기 시작했고, 풍물놀이 지도가 끝나면 밤 10시까지 피아노와 컴퓨터 지도도 학습지도와 기본생활지도도 병행했다.

학원이나 놀이시설이 없는 여자분교장 학생들은 새로운 도전에 집중력을 보이면서 실력이 일취월장, 지난해 10월 부여 세계사물놀이대회에서 80개 팀중 인기상을 수상하며 케도에 크게 빛났다.

섬 어른들이나 학부모들도 이때부터 풍물놀이 연주 소리가 나지 않으면 “동네가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할 정도로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지난 6월에는 부평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에서 금상과 함께 상쇠 정대운(3년)군이 특별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토했다.

현재 6명 학생 모두 3가지 이상 악기를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학생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가락을 익힌 후부터는 놀이를 하면서도 무릎장단을 치며 놀 정도의 이들은 송교사가 사준 로보트 보드 사물놀이를 연주하는 것을 더 좋아할 정도가 됐다.

섬 주민 30명 모두가 후원자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1978년 강진 마량초등학교에서 처음 교단에 선 후 29년동안 교육계에 헌신하고 있는 송교사는 “취미로 한 사물놀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다”고 웃었다.

송교사는 “저 혼자 할 것도 아니고 송선생님과 최선생님과 함께 지도한 성과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어떤 일이든지 부딪히고 도전하는 자세를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해경 첫 ‘여경 조종사’ 탄생

목포해경 이보람 경장, 조종 교육 이수

“힘든 교육과정이었지만 여경 최초로 공기부양정 조종사 교육을 받고 배치된 만큼 자부심을 갖고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해양경찰 사상 최초로 여경 조종사가 탄생했다. 목포해경 이보람(27·사진 왼쪽) 경장은 최근 배치된 2.5t급 최신예 공기 부양정 조종사로 임명됐다.

이 경장은 영국인 교관 알란 클락(57·사진 오른쪽)씨로부터 하루 8시간씩 3주동안 공기부양정 운항실습 및 장비작동법 등 강도 높은 조종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조종교육과정에서 여성 특유의 유연한 손놀림으로 항해 계기 등을 조작해 예비 조종사로서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길이 8m, 너비 3.9m의 공기부양정은 6명이 승선해 최대 속도 30 노트(시속 55km)를 낼 수 있으며, 레이더와 산소호흡기·인명구조장비·통신기 등이 구비돼 있다.

공기부양정은 공기 부양력을 이용, 수면위 60cm 높이 정도를 떠서 비행기처럼 날아가기 때문에 경비 함정의 접근이 어려운 서해안 갯벌에서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다. 주로 피서철 연안해역 안전관리와 응급 환자·조난자 구조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 경장은 “남자 직원들과 완벽한 팀워크를 이뤄 각종 사고에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처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목포=이상규기자 ish@

전교생 6명 풍물놀이 지도

전국대회 ‘최고상·특별상’ 수상



<손유> <사기와 준코> <디나 레베데바>

‘미수다’ 출연진, 지방자치 홍보대사에

행정자치부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 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홍보대사로 인기 토크쇼인 ‘미수다’ 출연진인 손유(중국), 사가와 준코(일본), 소피아 리자(말레이시아), 디나 레베데바(아제르바이잔)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그날은 우승보다 더 좋았어요”

우즈, 아빠된 기쁨과 출산 전날 뒷얘기 털어놓아



“의사가 병원에서는 내가 할 일이 없으니 경기(US오픈)에 출전하라고 하더군요. 가서 우승하려고 했습니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4일(이하 한국시간) 아버지가 된 기쁨과 첫 딸 출산 전날에 있었던 뒷얘기를 AP 통신 등 언론과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자신이 주최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내셔널에 출전하기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로 온 우즈는 “2

주 전 US오픈이 열릴 때부터 아내 앨린 이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있었다. 정말 아내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의사의 권고로 경기에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우즈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앨린에게는 몇가지 문제가 있었다. (경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면서 “첫 아이 출산은 우승보다 값진 것을 줬다”고 덧붙였다.

“US오픈 때 18홀 연장으로 갔다면 어떻게 할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우즈는 “그

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즈는 “첫딸이 아버지의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의미있는 이름을 붙이고 싶었다. 내 아버지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싫어하고 불렀다”며 첫 딸의 이름을 ‘샘 알렉시스’로 정한 이유도 설명했다.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이느라 밤 잠을 설친다는 우즈는 “잠을 많이 잘 필요는 없다. 지금도 자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웃었다.

돌아온 김·홍·신

낙선 뒤 3년간 두문불출... ‘대발해’ 발표



1981년 베스트셀러 ‘인간시장’을 펴냈던 정치인이자 소설가인 김홍신(60)씨가 발해 역사를 소재로 한 장편소설 ‘김홍신의 대발해’를 발표했다.

2004년 총선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 당시 한나라당 박진 후보에 밀려 낙선한 뒤 3년간 두문불출하며 집필한 역사작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668년 고구려의 멸망에서부터 고구려 유장 대조영이 세운 발해가 926년 멸망하기까지 발해국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실증 자료를 토대로 서술한다.

구당서, 신당서, 발해국지 등 수백 권의 자료를 연구 분석하고 발해의 유적지를 직접 탐방하며 치밀한 고증과 취재 끝에 펴냈다고 한다.

모두 10권짜리 대하소설로 200자 원고지 1만2천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다음 주 1-4권을 먼저 출간하고 그 다음주에 나머지 6권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다.

“한지로 만든 美 복식 마네킹 어때요”

버시바우 미 대사 부인 공예작품 출품



“러시아에선 고드름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한국에는 대나무가 있더군요.”

알래스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부인 리사 버시바우는 6~20일 서울에 머물면서 열리는 합동전시회에 출품한 자신의 공예 작품을 두고 “한국 생활을 작품에 녹이고 싶었다”고 4일 말했다.

이번에 전시되는 그의 작품은 은

과 알루미늄 등 금속 소재를 위주로 만든 목걸이, 바구니, 브로치 등 공예품 6점.

특히 호박과 유리구슬을 은과 알루미늄 소재로 켜 목걸이 ‘East Meets West’(동과 서의 만남) 전시를 위해 버시바우는 한지로 미국 전통 복식의 마네킹을 만들었다.

버시바우씨가 자신의 작품에 한지와 대나무 등 한국 전통적미를 더한 것은 2005년 외교관인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오면서부터다.



<리사 버시바우>

농협전남본부장 취임 ‘축하 화환 대신 쌀’



3일 이덕수 농협전남본부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지인들이 화환대신 선물로 보낸 20kg들이 쌀 200포대가 본부 2층에 쌓여 있다. 전남농협은 조만간 이 쌀을 각 시·군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인사

- ◆한국농촌공사
 - ▲전남도본부 고객지원팀장 오병희 ▲나주시사 반남지소장 김정택 ▲장성지사 지역개발팀장 김형용 ▲광주지사 지역개발팀장 주병후 ▲보성지사 지역개발팀장 김흥연 ▲화순지사 농지은행팀장 하태운 ▲해남지사 고객지원팀장 남기신
- ◆한국방송공사 <전보>
 - ▲광주지사 영업팀장 국승일
- ◆금호생명 <지점장>
 - ▲광주 선병선 ▲빛고을 김현철 ▲목포 선현석 ▲곡성 조영애
- ◆소방방재청 <전보>
 - ▲광주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 ▲전남 소방본부장 이양형
- 내방
 - ▲박희홍씨(광주세무서장) ▲이덕수씨(농협 전남지역본부장) ▲안호성씨(/ 홍보실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이우성(각화중학교 교사)씨 장남 승기군 박중문씨 장녀 경선양=7일(토) 오후 1시 센트럴시티 지하 오피스홀.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는 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에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이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성명의 전화 무료 상담=

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사)국제질제협회 광주서부지부 외국인 여성 위한 한글학교 운영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점심 제공). 한글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요리 강습을 통한 건강 및 음식 문화 이해 등. 382-3004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 6회 동창회(회장 강대식) 월례회=6일(금) 오후 6시40

분 목석연. 232-5224

중친회

▲연암김씨 광주시 중친회(회장 김남전) 격월회의=6일(금) 오후 6시30분 명덕회관.

▲연안이씨 문청(청련)공파 도문회=7일(토) 오전 11시30분 담양리 조트. 380-5000

모집

▲광주향교 사서삼경 수강생 모집=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3시, 5시. 주역·논어·맹자·소학. 문의 672-7008

▲이동복지교사 광주지원센터, 아동복지교사 모집=고졸 이상 학습지도 가능자. 문의 262-2780, 3

▲광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무료 훈련생 모집=가사 도우미와

개호 복지사 교육 희망하는 주부 및 고령자. 문의 511-0011~3

▲Ms magic 회원 모집=각종 이벤트·축제·레크리에이션 공연 등 마술회원 모집. 227-1991

▲오리학회 수강생 모집=조리사 자격증반·생활요리반·푸드 코디네이터반·외식 창업요리반 등 수강생 모집. 아바 주말반 운영. 문의 385-0723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무료 노레교실 수강생 모집=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계림동 마사회 광주지점 2층. 문의 410-5000

▲광주인연맞기학교 차량자원활동가 모집=휠체어 이용 장애아동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차량 자원활동가 모집. 문의 010-2323-2688

▲제 3의학 연구소 무료 강좌=심신 건강·습관 교정·활기찬 삶을 원하는 사람. 문의 227-0464

▲광주유교대학 신입생 모집=매주 월·수·금. 문의 672-6501

▲민요와 장구 사랑 회원 모집=남도 서도 경기민요를 배울 사람 모집. 사회 봉사 활동에 뜻있는 희망자

환영. 019-601-6989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우 사회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사진회원 모집=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는 자료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정기 현장 촬영. 010-3638-0289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 보조인 모집=북구 운남동 체험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431-8025, 010-9881-1276

▲여성생활체육 자전거 강좌 수강생 모집=여성이면 누구나 가능. 매주 월·화·금 오전 9시부터 상무시민공원 테니스장. 016-9877-0360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

9712-4316

▲천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봉행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광주교당, 천도교 교인 및 동학에 관심있는 분 525-1391

부음

▲김희남씨 별세 장경환(KG엔지니어링 부회장)·동환(국무조정실 한일대책기획단 부단장)·형환(네케스하이텍 대표이사)·경(전남대 명예교수)씨 모친상 고귀남(전 국회의원)·장애순(전 원주문화방송)·김영재(월산약국)·박인환(중앙약국)씨 빙모상=발인 5일(목) 무등장례식장 301호. 515-4488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기적같은 특별한 만남
전화 (062) 521-1100